

—[일].

「아이구 무슨 장마가 그러케 심히요」

흐며 담비를 붓치는 쯤 흐 마님 은 오릭간만에 오신 사돈마님이다.

「그러게 말이지요. 심한 장마에 아희들이 病[병]이나 아니 낫습니가. 그 동안 하인도 한번도 못 보너셔요」

흐며 마조 안저 담비를 붓치는 머리가 희긋々々 흐고 이마에 주름살이 두어 줄 보이는 이 李鐵原(이철원) 宅[택] 主人[주인]마님이다.

「아이구 별 말씀을 다 하시니다. 나 역 그릿셔요. 아희들은 충실하나 어 떤이 엇지 슈일 전부터 비가 압흐다고 흐더니 오날은 이러나 다니는 거슬 보고 왔셔요」

「어지간이 날이 더워야지요 조금 잘못 흐면 병 나기가 쉬워요 그리셔 좀 걱정이 되섯겟습니까」

「인저 낫스니까요 ㅁ음이 노여요 그런디 위기가 일본셔 와서 얼마나 반가 우셔요」

흐며 스돈 마님은 이젓든 거슬 째작 놀나 싱각흐는 듯시 말을 한다.

「먼디다가 보너고 늘 ㅁ음이 노이지 안타가 그리도 일년에 한 번식이라도 오니까 집안이 든々히요」

主人[주인]마님 김부인은 담비디를 짓터리에다 탁々 친다.

「그렛타 말다요. 아들이라도 ㅁ음이 아니 노일 터인디 처녀를 그러흐 먼 디다 보너시고 그러치 안켓습니가. 그런디 몸이나 충실히섯는지요」

「네 별 병은 아니 낫나 보아요. 제 말은 아모 고싱도 아니 된다 흐나 어 미 걱정 식힐가 보아 흐는 말이지 그 쯤 주리고 고싱이 되엿겟셔요. 그리셔 얼굴이 썩칠 히요」

흐며 뒤젓을 향흐야 「아가 々々 셔문 안사돈 마님이 너 보러 오섯다」 흐 다.

「네」

흐는 경희는 지금 시원흐 뒷마루에서 오릭간만에 맞난 오라버니 툇과 안저 셔 오라버니 툇은 버션을 집고 경희는 안진 지봉틀에 즈기 오라버니 양복 속적삼을 하며 일본셔 지닐 썩에 어느날 어디를 가다가 함맛터러면 전차에 치올번 흐엿드란 말 그리셔 지금이라도 싱각만 흐면 몸이 아슬々々 흐다는 말이며 겨울기 오면 도모지 다리를 펴고 자본 적이 업고 그리셔 아츰에 이

다리가 쫓 힌다는 말, 일본에는 하로 걸너 비가 오는 더 한번은 비가 심하게 퍼붓고 學校上學時間(학교상학시간)은 느껴서 그 굵 높흔 나막신을 신고 부즈런히 가다가 너머져서 다리에 가죽이 버셔지고 우산이 모다 찌져지고 옷에 흙이 못어 엇지 붓그러웠섯는지 몰낫섯드란 말, 學校[학교]에서 工夫[공부]헛든 이야기, 길에 다니며 보든 이야기 쫓헤 마침 어느 썸 活動寫眞(활동사진)에서 보앗든 어느 兒孩아해가 아버지가 작난을 못헛게 하니까 아버지를 팔아 버릴냐고 광고를 써다가 제 집 門[문] 밧 큰 나무에 다가 붓쳤더니 그 썸 마침 그 兒孩[아해]만한 六七歲[육칠세]된 남리가 父母[부모]를 이려버리고 彷徨[방황]헛다가 썸 두 푼 남은 돈을 쓰늬들고 이 廣告[광고]되로 아버지를 살냐고 門[문]을 두다리든 樣(양)을 半[반]썸 이야기헛는 中[중]이였다. 오라버니뵈은 어느듯 바누질을 무릅 우에다가 노코 「하々 허々」 헛며 滋味[자미]스럽게 듯고 안젓든 썸라. 「그릭서 엇더케 되엿소」 못다가 눈쌀을 찻흐리며

「얼는 다녀오」 간절히 청을 한다.

엽헤 안져서 빨늬에 풀을 먹이며 熱心[열심]으로 듯고 안젓든 시월이도 허를 톡々 찬다.

「암으렴 네 얼는 다녀오리다」

경희는 이레케 對答[대답]을 헛고 제 이야기에 자미 잇셔々 헛는 것이 깃버셔 우스며 압마루로 간다.

경희는 사돈 마님 압헤 절을 謙遜(겸손)히 헛며 인스를 엇주었다. 一年[일년] 동안이나 이져버렸든 절을 일전에 집에 到着[도착]할 썸에 아버지 어머니에게 헛였다. 흙으로 이번에 헛 절은 익숙헛였다. 경희는 속으로 일본서 날마다 세루 가로 썸며 작난헛든 생각을 헛고 지금은 이레케 얹전헛다 헛며 우섯다.

「아이고 그 좃튼 얼굴이 엇지면 저러케 못 되엿니 오작 고싱이 되엿섯실 나고」

사돈마님은 자비스러운 音聲(음성)으로 말을 한다 일부러 경희의 손목을 잡아 만젓다.

「썸 심흔 시집살이 헛 손 갖고나. 女學生[여학생]들 손은 비단결 갖헛다 는디 네 손은 웨 이러냐」

「살性[성]이 곱지 못히셔 그릭요」

경희는 고기를 칩으린다.

「제 손으로 빨늬 히 입고 밥까지 히 먹엇다니까 그렛치요」

경희의 어머니는 담뱃를 다시 붓치며 말을 한다.

저런 그러면 집에서도 아니 흐든 거슬 깃지에 가서 흐는구나. 네 일본학교 규축은 그러냐?」

사돈마님은 깜작 놀랐다. 경희는 아모 말 아니 한다.

「무얼요 제가 제 苦生[고생]을 사누라고 그리지요. 그것 누가 식히면 하겠습니까. 學費(학비)도 녀넌이 보너 주지마는 기이는 별나게 맞분거시 자미라고 혼담니다」

김부인은 아모 뜻 업시 어제 저녁에 자리 속에서 딸에게 드른 이야기를 한다.

「그건 왜 그리 고싱을 하니」

사돈마님은 경희의 이마 우에 넉필 々 내려온 머리카락을 두 귀 밋헤다 끼워주며 적삼 위로 등의 살도 만져보고 얼굴도 씨다듬어 준다.

「일본에는 겨울에도 불도 아니 썩인 디지 그리고 반찬은 감질이 나도록 조금 준디지 그것 엇지 사니?」

「네, 불은 아니 썩나 견디여 나면 관계치 안아요. 반찬도 꼭 먹을만치 주지 모져러거나 그러치는 아니 히요」

「그러자니 모도가 고싱이지 그런디 네 형은 그동안 병이 나서 너를 못 보러왔다. 아모 오날 저녁 쪽은 올 터이지」

「네 좀 보너주세요. 발셔부터 엇지 보고 심혔는지 몰나요」

「암 그러치 너 왔다는 말을 듯고 나도 보고 심히 흐엿는디 兄弟[형제]끼리 그러치 아니라」

이 마님은 원티 시집을 멀니 와서 부모 형테를 몹시 그리워 본 經驗[경험]이 잇는터라. 이 말에는 김흔 同情[동정]이 낮타난다.

「거거를 쏘 가니? 인져 고만 곱게 입고 안젓다가 富者[부자]집으로 시집가서 아들딸 낫코 자미드랍게 살지 그러케 고싱할 것 무엇 잇니?」

아직 알지 못흐야 그러케 흐지 못흐는 거슬 일너주는 것 갓히 경희에게 디흐야 말을 흐다가 마조 안진 경희 어머니에게 눈을 向[향]흐야 「그러치 안소 너말이 올치요」 흐는 것 갓하다.

「네 하든 공부 맞칠 썩까지 가야지요」

「그거슨 그리 만히 히 무엇하니. 사넌이 곱을 간단 말이야? 郡[군] 主事[주사]라도 혼단 말이나. 只今[지금] 世上[세상]에 사넌도 비화 가지고 쓸디가 업셔々 썩々 미는디……」

이 마님은 여간 걱정스러워 아니 한다. 그리고 디관절 계집이를 日本[일본]식지 보너여 공부를 식히는 사돈 영감과 마님이며 쏘 그러케 비호며 디체 무엇허자는 것인지를 몰나 답々히 흐 적은 오릭 전봇터 잇스나 다른 집

달나 사돈집 일이라 속으로는 늘 「저 계집이를 누가 데려가나」 辱[욕]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디로는 모른 채 하여 왔다가 오날 偶然우연한 조흔 期會[기회]에 걱정히오든 것을 말흔거실다.

경희는 이 마님 입에서 「어서 시집을 가거라. 공부는 히셔 무엇 하니」 꼭 이 말이 나올 줄 알았다. 속으로 「올치 그럴 줄 알았지」 하였다. 그리고 어제 오셨든 이모님 입에서 나오든 말이며 경희를 보실 썩 마다 걱정히시는 큰 어머니 말씀과 모다 一致[일치]되는 것을 알았다. 또 昨年[작년] 여름에 들었던 말을 금년 여름에도 듣게 되었다. 경희의 입살은 간질 々 하였다. 「먹고 입고만 하는 거시 사람이 아니라 비호고 알아야 사름이야요. 당 신딕처럼 영감 아들간에 첩이 넷이나 잇는 것도 비호지 못한 싸담이고 그것으로 속을 썩이는 당신도 알지 못한 죄이야요. 그러니까 녀편네가 시집 가서 시앗을 보지 안토록 한 것도 가라쳐야 하고 녀편네 두고 첩을 엇지 못하게 하는 것도 가라쳐야만 합니다.」 하고 심헛섯다. 이외에 여러 가지 레를 들어 설명도 하고 심헛섯다. 그러나 이 마님 입에서는 반드시 오날 아침에 다녀가신 할머니의 말씀과 갓흔 「애 넷날에는 녀편네가 비호지 안아도 壽富貴多男[수부귀다남]하고 잘 만 살아왔다. 녀편네는 東西南北[동서남북]도 몰나야 福[복]이 만탄다. 애 工夫[공부]한 女學生[여학생]들도 버리 방아만 찧게 되더라. 사늑가 첩 하나도 둘 줄 몰르면 그거시 사늑냐?」 하든 말씀과 갓히 꼭 이 마님도 할줄 알았다. 경희는 쇠 귀에 경을 읽지 하고 체 입만 압히고 저만 오날 저녁에 썩 이 생각으로 잠을 못 자게 될 거슬 생각 하였다. 썩 말만 시작하게 되면 답々 하여서 속이 불과 갓히 탈 것 즈연 오릭 동안 되면 뒷마루에서는 기다릴것을 생각하야 차라리 일절 입을 담을엇다. 더구나 이 마님은 입이 걸어서 한말을 드르면 열 말씀 그것말을 봇티여 女學生[여학생]의 말이라면 엇더튼지 흥만 보고 욕만 히기로는 수단이 용흔 줄을 알았다. 그리셔 이 마님 귀에는 좀체름흔 변명이라든지 설명도 조금도 고지가 들니지 안을 줄도 짐작하였다. 그리고 어느 썩 경희의 형님이 경희더러 「애 우리 시어머니 압헤셔는 아모 말도 하지마라. 더구나 시집이야기는 일절 말아라. 女學生[여학생]들은 예사로 시집 말들을 하더라. 아이구 망칙흔 세상도 만하라. 우리 자라날 썩는 어디가 처녀가 시집 말을 히보아 하신다 그 썩 아니라 여러 女學生[여학생] 흙담을 어디 가서 그러케 들고 오시는지 들고만 오시면 썩 나 드르라고 빗디노코 하시난 말씀이 정말 내 동싱이 학싱이여셔 그런지 도모니 듯기 실터라. 日本[일본]가면 계집이 버리너니 별々 못 드를 말씀을 다 하신단다. 그러니 아모조록 말을 조심히라」 혼 付托[부탁]을 받은 것도 있다. 경희는 썩 이 마님 입에서 무슨 말이

보아 마음이 조릿 ㄱ ㅎ였다.

그리셔 다른 말 시작되기 前[전]에 뒷마루로 다라날랴고 궁뎡이가 들  
석ㄱㄱ ㅎ였다.

「있다가 급히 입을 오라범 속적삼을 ㅎ던 거시 잇셔 ㄱ 가보아야겠습니  
다」

고 경희는 알튼 니가 싸진이나 만콸 시원하게 그 압홀 면 ㅎ고 뒷마루로 나  
서며 큰 숨을 한 번 쉬었다.

「왜 그리 느졌소? 그리셔 그 아버지를 ㅎ더케 ㅎ소」

오라버니딕은 그 동안 버션 한 짝을 다 기워놋코 쯔 한 짝에 압벌을 디이  
다가 경희를 보자 무릅 우에다가 놋코 밧삭 갓가이 안즈며 궁금 ㅎ든 이야기  
쑥출 칫쳐 못난다. 경희의 눈쌀은 찻호려졌다. 두 뺨이 실죽히졌다. 시월이  
는 빨너를 기키다가 경희의 얼굴을 눈결에 실적 보고 눈치를 ㅎ였다.

「자근 아씨 셔문안딕 마님이 쯔 시집 말슴을 ㅎ시지요?」 아춤에 경희가  
할머니 다녀가신 뒤에 마로에서 혼자말노 「시집을 갈 썩 가더라도 하도 여  
러 번 드르니까 인제 도모지 실여 죽겠다」 ㅎ든 말을 시월이가 부엌에서 들  
었다. 지금도 자세히는 들니지 안으나 그런 말을 ㅎ는 것 갓혔다. 그리셔  
자근 아씨의 얼굴이 저러케 불냥 ㅎ거니 ㅎ였다. 경희는 우셨다. 그리고 바  
누질을 붓들며 이야기 쑥출 연속 ㅎ다. 안마루에서는 如前[여전]히 두 마님  
은 서로 술도 전 ㅎ며 담비도 잡수면서 경희의 말을 ㅎ다.

「이기가 바누질을 다 ㅎ요?」

「네 바누질도 곳잘 ㅎ요. 남정의 윗웃은 못 ㅎ지요마는 제 웃은 썩미여 입  
지요」

「아이구 저런 어느 틈에 바누질을 다 비핿셔요. 양복 속적삼을 다 ㅎ요.  
학싱도 바누질을 다 ㅎ나요」

이 마님은 果然[과연] 女學生[여학생]은 바늘을 쥐울 줄도 모로는 줄 알았  
다. 더구나 경희와 갓히 셔울노 日本[일본]으로 쏘다니며 공부 ㅎ다 ㅎ고  
덜녕 ㅎ고 쑥 사너 곳흔 학싱이 제 웃을 썩미여 입는다 ㅎ는 말에 놀났다.  
그러나 역시 속으로난 그 바누질 쑥이 오작할가 ㅎ였다. 김부인은 썩의 칭  
찬 ㅎ으나 못난 말에 마지 못 ㅎ야 드답 ㅎ다.

「어디 바누질이나 제법 안져셔 비홀 식나 잇나요. 그리도 차 ㄱ 철이 나면  
즌연히 의사가 나느 보아요. 가라치지 아니 ㅎ도 제 절노 썩미게 되던구면  
요. 어려운 공부를 ㅎ면 의사가 퇴우나보아요」

김부인은 말쑥을 쓴 ㅎ다가 다시 말을 ㅎ다. 이 마님 귀에는 쑥 거짓말갓  
다.

양복 속적삼은 작년 여름에 南大門[남대문] 맞게서 日女[일녀]가 와서 가라치든 직봉틀 바누질 講習所[강습소]에를 날마다 니며 빅혔지요. 제 족하들의 洋服[양복]도 히셔 입히고 帽子[모자]도 히셔 씨우고 또 제 오라비 여름 양복식지 히셔요. 日語[일어]를 아니까 션싱히고 친하게 되여서 다른 사람에게는 가라쳐 주지 안는 것식지 다 가라쳐 주더리요. 낮에는 빅화가지고 와서는 밤이면 쪽 열두시 식로 한 시식지 안져셔 빅온거슬 보고 그딴로 그리고 모다 치수를 적고 히셔요. 나는 그게 무엇인가 히엇더니 나중에 직봉틀 회사 감독이 와서 그리는디 「이제식지 일어로만 히 거시야셔 부인네들 가라치기에 불편히더니 짜님의 밋든 칙으로 펍 유익하게 쓰겟습니다」 히는 말에 그런 것인줄 알았셔요. 춤 가라치면 어디든지 그러케 쓸디가 잇던구면 요 그 썸 아니라 그 점잔은 일본 사름들의게도 엇지 존디를 밋는지 몰나요. 기 익가 왓단 말을 어디셔 드렸는지 감독이 일부러 일전에 또 차자왓셔요. 일본서 졸업히고는 괴어히 즈기 회사의 일을 보아 달나고 히더리요. 처음에는 月給[월급] 一千五百兩[일천오백냥]은 쉽디요. 차々 올느면 三年[삼년]안에 二千五百兩[이천오백냥]은 밋는다는디요 다른 녀즈는 제일 만흔 거시 七百[칠백] 원냥이라는데 아마 기익는 일본까지 가서 공부히 싸닭인가 보아요. 저것도 기 익가 직봉틀에 한 것입니다」

히며 마즌 편 벽에 유리에 늘어 걸어 노은, 압헤 물이 흘느고 뒤에 나무가 총총히 村[촌] 景致경치를 턱으로 가라친다. 경희의 어머니는 결코 여기식지 쌀의 말을 할냐고 한 거시 아니엿다. 히거시 自然[자연] 月給[월급] 말식지 히게 된거슨 不知中[부지중]에 여기식지 말히엿다. 김부인은 다른 부인네들 보다 더구나 이 사돈 마님보다는 훨씬 開明[개명]을 히 婦人[부인] 일다. 根本[근본] 性品[성품]도 결코 남의 흥을 보는 부인은 아니엿고 혹 부인네들이 모혀 녀학싱의 못된 점을 쓰너여 흥을 보던지 히면 그러치 안타고식지 반디를 히 적도 만히니 이거슨 디기 즈기 쌀 경희를 몹시 괴특히 아는 식닭으로 녀학싱은 비누질을 못히다든가, 쌀너를 아니 히다든가, 살넘살이를 할 줄 몰는다든가 하는 말이 모다 일부러 흥을 밋드려 말히거니 히다. 그러나 공부히셔 무엇히는지 왜 경희가 일본식지 가서 공부를 히는지 졸업을 히면 무어세 쓰는지는 역시 김부인도 다른 부인과 갓히 몰났다. 혹 여러 부인이 모혀셔 짜님은 그러케 공부를 식혀셔 무엇히나요? 질문을 히면 「누가 아나요. 이 세상에는 계집이라도 빅화야 히다니까요」 이러케 즈기 아들에게 늘 드러오든 말노 어물々々 디답을 흘 썸이엿다. 김부인은 과연 알았다. 공부를 만히 할수록 존디를 밋고 월급도 만히 밋는 거슬 알았다. 그러케 번질 — 히 양복을 낚고 금시계줄을 느린 점잔은 감독이 조고마흔 녀자

일부러 차자와서 절을 수업시하는 것이라든지, 종일, 한 달 三十日[삼십 일]을 악을 쓰고 속을 킁이는 普通學校[보통학교] 教師[교사]는 만하야 六百[육백] 시무냐이고 普通보통 五百兩[오백냥]인디 「천 히 놀면서 一年[일년]에 평풍 두 짝만이라도 잘만 노하 주시면 月給[월급]은 꼭 四十圓[사십 원]식은 디리지요」 하는 말에 김부인은 과연 공부라는 거슨 꼭 히야할 것이 고 하면 조금 하는 것보다 일본식지 보너서 식혀야만 할 거슬 알았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에 경희가 「공부를 하면 만히 히야겠셔요. 그리야 남의게 존디를 밧을 썬외라 저도 사름 노릇을 할 것 긋히요」 하든 말이 아마 이리 서 그릿던가 보다 하엿다. 김부인은 인제부터는 의심업시 확실히 즈기 아들이 경희를 왜 일본식지 보너라고 익을 쓰던 것 지금 世上[세상]에는 女子[여자]도 男子[남자]와 긋히 만히 가라쳐야 홀 거슬 알았다. 그리서 김부인은 이제식지 누가 「짜님은 공부를 그러케 식혀 무엇 흡니까?」 무르면 등에서 짬이 흐르고 얼굴이 벌거케 취히지며 이럴 썬마다 아들만 업스면 곳이라도 데라다가 시집을 보너고 심흔 생각도 만하섯스나 지금 생각하니 아달이 뒤에 잇셔 々 즈기 부부가 경희를 데려다 시집을 보너지 못하게 한 거시 多幸[다행]하게 生覺[생각]된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누가 못든지 간에 녀즈도 공부를 식혀야 의사가 나셔 가라 치지 아니흔 바누질도 할 줄 알고 일본식지 보너여 공부를 만히 식혀야 존디를 밧을 것을 분명히 설명식지라도 할 것 갖다. 그리서 오날도 사돈마님 압헤셔도 부지중 여긋식지 말을 하는 金夫人[김부인]의 態度[태도]는 조금도 躊躇주저하는 빗도 업고 그 얼굴에는 깃뭉이 가득하고 그 눈에는 「나는 이러흔 영광을 누리고 이러흔 자미를 본다」 하는 表情[표정]이 가득하다.

사돈 마님은 半信半疑반신반의로 엇더튼 썬식지 들엿다. 처음에는 물논 거짓말노 드를 썬만 아니라, 속으로 「너는 아마 큰 계집익를 버려 노코 인제 시집 보닐 것이 걱정이니까 저러케 업는 칭찬을 하나보구나」 하며 이야기 하는 金夫人[김부인]의 눈이며 입을 노려보고 안젓다. 그러나 이야기가 점점 기러갈수록 그럴 듯하다. 더구나 監督감독이 왔드란 말이며 尊待[존대]를 하드란 것이며 사너도 여간흔 郡主事군주사썬은 바랄 수도 업는 月給[월급]을 二千兩[이천냥]식지 주겿드란 말을 드를 썬 는 설마 저러케식지 그짓 말을 할가 하는 생각이 난다. 사돈 마님은 아직도 참말노는 알고 심흐지 안으나 엇썬지 김부인의 말이 그짓말 갖지는 아니 하다. 썬 벽에 걸닌 繡[수]도 確實[확실]이 自己[자기] 눈으로 볼 썬 아니라 썬 시 업시 박휘굴노는 裁縫재봉틀 소리가 當場[당장] 自己[자기] 귀에 들닌다. 마님 ㅁ음은 도모지 이상하다. 무슨 큰 失敗[실패]나 혼것도 갖다. 良心[양심]은 스스로 自

자복하였다. 「넌가 녀학싱을 잘못 알아왔다. 정말 이 집 쌀과 갖히 계집  
이도 공부를 식혀야겠다. 어서 우리 집에 가져 너우식히든 孫女[손녀] 쌀들  
을 너일벗히 學校[학교]에 보너야겠다고 꼭 결심을 히다. 눈압히 암울 々  
히오고 귀가 쩍 — 히다. 아모 말 업시 눈만 썸떡々々 히고 안졌다. 뒤것흐  
로 부러 두러오는 시원흔 바람 중에는 절믄 우숨소리가 사점시를 썸트릴만  
치 자미스롭게 쓰혀 드러온다.

二[이].

「이 더운디 자근 아씨 무얼 그러케 히십니까?」

마루 솟헤 썸 함지를 힘 업시 노히며 썸을 씻는다. 얼굴은 억죽々々 열고  
머리는 평양머리를 히셔 언고 알눅달눅흔 면주 수건을 아므러케나 썸 나이  
가 히 四十[사십] 假승[가령]된 썸장사는 의례히 하로에 한번式[식] 이 집  
을 들닌다.

「심々히니까 작난 좀 히오」

瓊姬(경희)는 압치마를 치고 마로 솟헤 셔々 셋투른 칼질노 파를 쓴다.

「어느 틈에 감치 당그는 거슬 다 비히셨셔요. 날마다 다니며 보아야 자근  
아씨는 도모지 노으시는 거슬 못 보았습니다. 冊[책]을 보시지 안으면 글씨  
를 쓰시고 바누질을 아니 히시면 저러케 김치를 당그시고……」

「너편네가 너편넌 할 일을 히는 것이 무어이 그리 신통할 것 잇쇼」

「자근 아씨 갓흔이나 그러치 어느 女學生[여학생]이 그러케 므음을 먹는  
이가 잇나요」

썸장사는 무릅을 치며 경희의 압흐로 밧삭 앗는다. 경희는 방긋 — 시 웃  
는다.

「그건 썸장사가 잘못 안 것이지 女學生[여학생]은 사름 아니요 女學生[여  
학생]도 옷을 입어야 살고 음식을 먹어야 살 것 아니요?」

「아이구 그러케 말이지요. 누가 아니리오 그러나 자근 아씨갓치 그러케  
아는 녀학싱이 어딤 잇셔요?」

「자 稱讚[칭찬] 만히 밧엇스니 썸이나 한 시무냥아치 살까!」

「아이구 어멈을 저러케 아시네. 썸 파러 먹을냐고 그런 거슨 아니야요」  
변덕이 디룩々々히 두 썸의 살이 축 쳐진다. 그리고 너는 나를 잘못 아는  
고나 히는 怨罔원망 으로 두둑흔 입설이 썸죽흔다. 경희는 것눈으로 보았  
다. 그 므음을 짐작하였다.

「아니요 부러 그러치 稱讚[칭찬]을 밧으니까 조와셔……」

「아니야요 稱讚[칭찬]이 아니라 정말이야요」 다시 정다이 밧삭 안지며 히



.....

너털우습을 한 판 너넨다. 「정말 멋히를 두고 날마다 다니며 보아야 자근 아씨처럼 낮잠 한 번도 지무시지 안코 꼭 무엇을 흐시는 아씨는 처음 보았셔요」

「썩 장사 오기 前[전]에 자고 썩 장사가 가면 쏘 자는 걸 보지를 못흐었지」

「쏘 저러케 우원 말씀을 하시네. 썩 장사가 아모 썩나 아참에도 다녀가고 낮에도 다녀가고 저녁 썩도 다녀가지 學校[학교]에 다니는 學生[학생]갓치 時間[시간]을 맞춰서 다니나요! 응? 그러치 안쇼?」 흐며 뒷마루에서 밧돌에 풀 깔고 잇는 시월이를 본다. 시월이는 「그리요. 어디가 압흐시기 前[전]에 한 번도 낮잠 지무시는 일 업셔요」

「여보 썩장사 썩이 다 쉬면 엇지 할나고 이러케 한가이 안저서 이야기를 흐오」

「아니 관계치 안아요」

썩 장사의 말소리는 아모 힘이 업다. 썩 장사는 이 자근 아씨가 「그리셔 엇젼쇼」 흐며 밧아만 주면 이야기 할 것이 만했다. 저의 집 썩 방아 썩튼 일군에게서 드른 요식 新聞[신문]에 어느 녀학싱이 學校[학교] 간다고 나가셔는 몇칠 아니 드러오는 고로 수식을 히보니까 어느 사넬에게 썩임을 밧아서 첩이 되엿드란 말이며, 어느 집에서는 며누리를 녀학싱을 엇어 왔더니 버션 깃는 디 올도 차질 줄을 몰나모다 썩드로 디엿드란 말, 밥을 흐엿는 디 반은 티엿드란 말, 날마다 四方[사방]으로 썩다니며 平均[평균] 한 마디 식 들어 온 녀학싱의 흠담을 흐랴면 不知其數[부지기수]이엿다. 그리셔 이러케 신이 나서 무릅을 치고 밧삭 드러 안젼썩스나, 경희의 말 디답이 너머 冷[냉]정하고 점잔음으로 썩 장사의 속에서 썩쳐 오르든 거시 어느 듯 거품 썩지듯 썩졌다. 썩장사의 므음은 무어슬 일흔 것 갓치 空然[공연]히 셔운흐다. 썩 바구미를 들고 이러실가 말가 하나 엇썩지 썩 이러실 수도 업다. 그리셔 썩 바구미를 두 손으로 놓는 치로 안저서 모른 체 흐고 칼질흐는 경희의 모양을 아리위로 훌터도 보고 마루를 보며 션반 우에 언젼 소반의 수효도 세워 보고 精神[정신] 업시 얼 썩진 것 긋히 안젼다.

「훤 썩 뒷냥아치 흐고 기피 썩 두냥 반어치만 너노케」

김부인은 고흔 돛자리 위에 붓치질을 흐면서 두러누엿다가 쌀 경희의 조와 흐는 기피썩 흐고 아들이 잘 먹는 훤 썩을 너노라 흐고 주머니에서 돈을 쓰넨다. 썩장사는 멀간이 안젼다가 썩작 놀나 너노흐라는 썩 수효를 몇 번式[식] 되푸리히 세워셔 너노코는 뒤도 도라다 보지를 안코 썩 바구미를 이우

나가다가 다시 이 宅[택]을 오지 못하면 썩을 못 팔게 될 生覺[생각]을 하고 「자근 아씨 너일 쏘 와요 허 々」 하며 門[문]을 나서 々는 큰 썩을 쉬었다. 生三八[생삼팔] 두루막이 고름을 달고 안젓든 경희의 오라버니 틱이며 경희며 시월이며 서로 얼굴들을 치여다보며 말엽시 썩긋썩긋 웃는다. 경희는 속으로 깃버한다. 무어슬 었은 것 갖다. 썩 장사가 다시는 남의 흥을 보지 아니 하리라 生覺[생각]할 썩에 큰 教育[교육]을 흥 것도 갖다. 경희는 칼자루를 들고 안져서 무슨 生覺[생각]을 곰곰이 한다.

「춤 익기는 못 할 거시 업다」

얼굴에 愁色[수색]이 가득하야 실음업시 두 손갈 을 마조 잡고 안젓다가 簡單[간단]히 이 말을 하고난 다시 입을 썩 담으며 한심을 산이 써지도록 쉬이는 한 녀인에게는 아모도 모로는 큰 걱정과 설음이 잇는 것 갖다. 이 녀인은 僅[근] 二十年[이십년] 동안이나 이 집과 親[친]하게 다니는 녀인이라 경희의 兄弟[형제]들은 아주머니라하고 이 女人[여인]은 경희의 兄弟[형제]를 々의 親[친]족하들갓치 貴愛[귀애]한다. 그리셔 심 々 하여도 이 집으로 오고 속이 傷[상]할 썩에도 이 집으로 와서 웃고 간다. 그런딕 이 녀인의 얼굴은 항상 검은 구름이 끼우고 조흔 일을 보던지 즐거운 일을 당하던지 썩혜는 반드시 휘 — 한심을 쉬우는 싸코 싸인 설음의 原因[원인]을 알고 보면 누구라도 同情[동정]을 아니 할 수 업다.

이 女人[여인]은 老年[년] 과부라. 남편을 일은 後[후]로 衰切[애절] 복통을 하다가 다만 滋味[자미]를 붓치고 樂[낙]을 삼는 거슨 千幸萬幸[천행만행]으로 었은 遺腹子[유복자] 壽男[수남]이 잇슴이라. 하로 지나면 壽男[수남]이도 조금 크고 한 히 지나면 壽男[수남]이가 한 살이 는다. 겨울이면 추울가 녀름이면 더울가 밤에 자다가도 困[곤]히 자는 壽男[수남]의 투덕 々 々 볼기썩을 몇번씩 썩 々 々 々 든 世上[세상]에 둘도 업는 貴[귀]흔 아들은 어느 듯 나이 十六歲[십육세]에 이르러 四方[사방]에서 婚姻[혼인] 하자는 말이 쓴일 식 업섯다. 壽男[수남]의 어머니는 식로이 며나리를 었어 혼즈 滋味[자미]를 볼 것이며 남편도 업시 혼자 폐빅 बात을 生覺[생각]을 흥다가 자리 속에서 눈물도 만히 흘녘다. 그러나 항여 이러케 눈물을 흘녀 貴重[귀중]흔 아들의게 사위스러울가 보아 할 수 잇는 디로는 畝息을 깃봄으로 돌녀 싱각하고 눈물을 우습으로 이룰냐 흥였다. 그리셔 알쓸살쓸이 돈이며 疋物[등속]을 며누리 었으면 줄냐고 모혔다. 唯一無二[유일무이]의 아들을 장가되리던디는 쓰리는 것도 만코 보는 것도 만혔다. 그리셔 며누리 션을 시어머니가 보면 아들이 가난하게 산다고 흥는 고로 壽男[수남]의 어머니는 일절 中媒[중매]에게 뵈기고 궁합이 맞는 것으로만 婚姻[혼인]을 定[정]흥

. 식 며누리를 엮고 아들과 며누리 사이에 玉[옥]과 갓흔 손녀며 金[금] 갓흔 손子[자]를 보아 집안이 씨들석하고 滋味[자미]가 퍼부울 거슬 날마다 想像[상상]하며 기다리든 며누리는 果然[과연] 오날의 이 한심을 쉬우게 하는 원수일다. 열넉곱에 시집은 後[후]로 八年[팔년]이 되도록 시어머니 조고리 하나도 꾸미여서 情多[정다]히 드러보지 못흔 철천지 한을 시어머니 가슴에 잉켜준 이 며누리라. 壽男[수남]의 어머니는 本來[본래] 性品[성품]이 順[순]하고 德[덕]스러움으로 아모조록 이 며누리를 잘 가라치고 잘 믿들나고 이도 無限[무한]이 쓰고 남 몰누게 腹腸복장도 만히 쳤다. 이러면 나흘가 저러케 하면 사름이 될가 해야 혼자 궁구도 만히 하고 타일느고 가라치기도 數[수]업시 하였스나 어제가 오날갓고 너일도 일반이라. 바늘을 쥐어주면 곳 줄고 안젓고 밥을 하라면 죽은 썬어 노으나 거기다가 나이가 먹어 갈수록 믿음만 영뚱히 가는 거슨 더구나 사름을 기가 막키게 한다. 이러하니 썬로 속이 傷[상]하고 날노 기가 막히는 壽男[수남]의 어머니는 이 집에 올 썬마다 이 집 며누리가 시어머니 저구리를 암전히 하는 거슬 보면 나는 이 며누리 손에 저러케 저구리 한아도 엮어 입어 보지를 못하나 하며 한심이 나오고 경희의 부즈런흔 거슬 볼 썬에 나는 왜 저런 민첩흔 며누리를 엮지 못하였는가 하며 한심을 쉬우는 거슨 즈연흔 人情[인정]이리라. 그럼으로 이러케 멀건이 안져서 경희의 김치 당그는 양을 보며 썬 썬장사가 한참 씨들고 간 뒤에 간단흔 이 말을 하는 썬혜 한심을 쉬우는 그 얼골은 참아 볼 수가 업다. 머리를 숙이고 골몰이 칼질하든 경희는 임의 이 아주머니의 설음의 原因[원인]을 아는 터이라 그 한심소리가 들니자 윈 몸이 씨르 하도록 同情[동정]이 간다. 경희는 이 刺戟자극을 받는 同時[동시]에 이와 갓치 朝鮮[조선] 안에 여러 不幸[불행]흔 家庭[가정]의 形便[형편]이 方今[방금] 제 눈압혜 보이는 것 곳하다. 힘 잇게 칼자로 々 도마를 탁 치는 경희는 무슨 큰 決心[결심]이나 하는 것 갓다. 경희는 곳게 盟誓(맹서)하였다. 「내가 가질 家庭[가정]은 決[결]코 그런 家庭[가정]이 아니다. 나 썬 아니라 내 子孫[자손], 내 親舊[친구], 내 門人[문인]들의 믿들 家庭[가정]도 決[결]코 이러케 不幸[불행]하게 하지 안는다. 오냐 내가 썬 한다」 하였다. 경희는 々 썬 썬다. 안 부억에서 썬을 썬 々 흘니며 풀 썬는 시월이를 짜러간다.

「애 나하고 하자. 붓쓰막에 올라 안져서 풀막되이로 걸냐? 아궁이 압혜 안져서 썬을냐? 엮던 거슬 하였스면 좃켓니? 너 하라는 디로 할 터이니, 두 가지를 다 할 줄 안다」

「아이구 고만 두셔요, 더운디」

는 더운디 혼자 풀을 저면서 불을 썩너라고 썩 ㅎ든 中[중]이다.

「아이구 이년의 八字[팔자]」恨歎(한탄)을 ㅎ며 눈을 멀건이 쓰고 밀집을 쓰러 썩고 안젓든 썩라, 자근 아씨의 이 말 ㅎ 마티는 더운 中[중]에 바람 갖고 괴로움에 우습일다. 시월이는 속으로 「저녁 진지에는 자근 아씨의 질 기시는 옥수々를 어디가셔 맛있는 거슬 엇어다가 썩셔 디려야겟다」 ㅎ였다. 마지 못ㅎ야.

「그러면 불을 썩셔요. 제가 풀은 저울 거시니……」

「그릭 어려운 거슨 오릭동안 졸업ㅎ네가 히라」

경희는 불을 썩우고 시월이는 풀을 젓는다. 위에서는 「푸々」 「부굴부굴」 ㅎ는 소리, 아래에서는 밀집의 탁々 튀는 소리 마치 경희가 東京[동경] 音樂學校[음악학교] 演奏會席(연주회석)에서 ㄷ던 管絃樂奏관현악주 소리 갖기도 ㅎ다. 썩 아궁이 저 속에서 밀집 ㅅ해 불이 ㄷ기며 漸[점]々 불빛이 强[강]ㅎ고 번지는 同時[동시]에 차차 아궁이ㅅ지 갖가와지자 썩 漸[점]々 불ㅅ이 弱[약]히져 가는 것은 마치 피아노 저 ㅅ해셔 이 ㅅㅅ지 칠썩에 ㅅ々ㅎ던 것이 漸[점]々 썩々ㅎ도록 되는 音律(음률)과 갖히 보힌다. 熱心[열심]으로 젓고 안진 시월이는 이러ㅎ 滋味[자미]스러운 거슬 몰누겟고나 ㅎ고 제 ㅅ각을 ㅎ다가 저는 조금이라도 이 妙[묘]한 美感[미감]을 ㅎ길 즐아는 거시 얼마콧 幸福[행복]하다고도 ㅅ각ㅎ였다. 그러나 저보다 몇 十百 倍[십백배] 妙[묘]ㅎ 美感[미감]을 ㅎ기는 者[자]가 잇스려니 ㅅ각할 썩에 제 눈을 썩여 바리고도 ㅅ고 제 머리를 ㅅ디려 바치고도 ㅅ다. 썩건불ㅅ이 ㅅ안간 ㅅ란 빛으로 變[변]ㅎ다. 아 — 이것도 사름인가, 밥이 ㅅ갑다 ㅎ였다. 경희는 不知中[부지중] 「滋味[자미]도 슥다」 ㅎ였다.

「딴체 자근 아씨는 별것도 다 자미잇다고 ㅎ십니다. 썩너ㅎ면 썩국물 흐르는 것도 滋味[자미]잇다 ㅎ시고, 마로 걸넛질을 치시면, 아직 안친 한 편 쪽 마루의 ㅅ연 거시 보기 滋味[자미]잇다 ㅎ시고, 마당을 ㅅ면 ㅅ슬 만하지는 것이 滋味[자미]잇다 ㅎ시고, 나중에는 무엇ㅅ지 滋味[자미]잇다고 ㅎ실는지 ㄷ간에 구택이 ㅅ는 것은 滋味[자미]잇지 안으셔요?」

경희는 속으로 「오냐 물론 그것ㅅ지 滋味[자미]잇게 보여야 할 거실다. 그러나 너 눈을 언제나 그러케 밝아지고 내 머리는 어느 썩나 거기ㅅ지 發達 발달될는지 불상ㅎ고 寒心[한심]스럽다」 ㅎ였다.

「애 그러디 말ㅅ이 나왔스니까 말이다. 썩너 언제 ㅎ니?」

「왜요? 모리는 히야겟셔요」

「그러면 저녁썩 ㅎ지?」

「아마 ㅎ질 걸이요!」

일즉 쫓이 나더라도 기천에 겨 살아라. 그러면 것은방 아씨하고 저녁히 놀 터이니 늦게 드러와서 잡수어라. 너 손으로 한 밥맛이 엇던가 보아라 히 々」

시월이도 갖치 웃는다. 엇제면 사름이 저러케 人情[인정]스러운가 한다. 누가 나 먹으라고 단 참외나 주엇스면 저 자근 아씨 갖다 디리게 속으로 혼 자말을 한다. 果然[과연] 시월이는 이러케 고마운 소리를 드를 썩마다 惶悚 황송스러워 엇지 할 수가 업다. 그리셔 입이 잇스나 엇더케 말할 줄도 모르고 다만 자근 아씨의 잘 먹는 果實[과실]은 아는지라, 체게 돈이 잇스면 사다가라도 디리고 십흐나 돈은 업슴으로 사지는 못흐되 틈々이 어디가셔 옥수수며 살구는 곱잘 求[구]히다가 디렸다. 이러케 경희와 시월이 스이는 스이가 조홀 썩 外[외]라 이번에 경희가 日本[일본]셔 올 썩에 시월의 자식 點童점동이게는 큰 덕 익기네들보더 더 조흔 作亂작난감을 사다가 준 거슨 시월의 썩가 녹기 前[전]썩지는 잇즐 수가 업다.

「애 그런데 너와 일할 것이 썩 하나 잇다」

「무엇이야요?」

「글세 무어시든지 내가 하자면 흐겠니?」

「암을암요. 흐지요!」

「너 왜 그러케 우물 썩덩을 더럽게 히놋니」

「도모지 더러워 볼 수가 업다. 그러니 내일부터 설음질 뒤에는 썩 날마다 나하고 우물 썩덩을 치우자 너 혼자만 하라는 거슨 아니다. 그러케 흐겠니?」

「네 제가 혼자 날마다 치우지요」

「아니 나하고 갖치 히…… 滋味[자미]스럽게 하々々」

「썩 滋味[자미]요? 하々々々」

부역이 썩들석하다. 안마루에서 드르시든 경희 어머니는 썩 우습이 始作[시작]되엿군 하신다.

「아이 무어시 그리 우순지 기 익가 오면 밤낮 셋이 몰겨 다니며 웃는 소리 도모지 살न्ह히 못견디겠셔요 젊어슬 썩는 말썽 구르는 거시 다 우습다더니 그야말노 그런가 보아요」

壽男[수남] 어머니에게 對[대]히야 말을 한다.

「웃는 것 밧게 조흔 거시 어딴 잇습니가. 덕에를 오면 산 것 갖습니다」

壽男[수남] 어머니는 썩 휘…… 한심을 썩다. 마루에 혼자 썩러져 바누질 흐든 것은 방 식씨는 우습 소리가 들니자 한 밧에 신을 신고 한 밧에 집신을 끌며 부역 문지방을 드러시며.

무슨 이야기요? 나도……」 한다.

三[삼].

「마누라 지무시오?」

李鐵原[이철원]은 사랑에서 드러와 안방 문을 열고 경희와 김부인 자는 모  
괴장 속으로 드러신다. 김부인은 깜작 놀라 니러 안는다.

「왜 그러셔요 어디가 便[편]치 안으셔요?」

「아 — 니, 空然[공연]히 잠이 아니 와서……」

「왜요?」

이 썩에 마로 壁[벽]에 걸닌 自鳴鐘자명종은 한 번을 쟁 친다.

「두려 누어서 곰곰 생각을 흐다가 마누라호고 議論[의논]을 하러 두려 왔  
소!」

「무얼이요?」

「경희의 婚姻[혼인] 일 말이요. 도모지 걱정이 되어 잠이 와야지」

「나 역 그리요」

「이번 婚處혼처는 꼭 늦치지를 말고 히야지. 그만한 곳 업소. 그 新郎[신  
랑] 아버지 되는 者[자]고난 前[전]부터 익숙히 아는 터이니까 다시 알아  
볼 것도 업고 當者[당자]도 그만 흐면 쓰지 別[별] 兒孩[아해] 어딤 잇다  
長子[장자]이니까 그 만흔 財產[재산] 다 相續[상속]될 터이고 쏘 경희는  
그런 大家[대가]집 맞며누리감이지……」

「글세 나도 그만한 婚處[혼처]가 업는 줄 알지마는 제가 그러케 열길이나  
썩고 싹트는 거슬 엇더케 혼단 말이요. 그러케 싹타고 흐는 거슬 抑制억제  
로 보너엿다가 나중예 不吉[불길]한 일이나 잇스면 子息[자식]이라도 그 怨  
罔[원망] 을 엇더케 듯잔 말이요……」

「아…… 니 不吉[불길]할 일이 잇슬 까답이 잇나 人品[인품]이 그만 흐것  
다. 秋收추수를 數千石[수천석]흐겟다. 그만흐면 고만이지 그러면 엇더케  
흐잔 말이요. 계집이가 열 아홉 살이 적소?」

金夫人[김부인]은 잠 이 잇다. 李鐵原[이철원]은 혀를 툭々 차며 後悔[후  
회]를 흐다.

「내가 잘못이지 계집이를 일본까지 보너다니 계집이가 시집가기를 싹타니  
그런 망칙한 일이 어딤 잇셔 남이 알가 보아 무섭지. 발셔 適合[적합]한 婚  
處[혼처]를 몇 군더를 늦쳤스니 엇더케 흐잔 말이야! 아이……」

「그러면 婚姻[혼인]을 언제로 흐잔 말이요?」

저만 對答[대답]하면 只今[지금]이라도 곳 하지 오날도 지촉 片紙[편지]가 왔는디…… 已往[이왕]게집이라도 그만치 가라쳐 노앗스니까 넷날처럼 父母[부모]끼리로 할 수는 업고 히서 받서 사흘씩 불너다가 타일느나 도모지 말을 드러먹어야지. 게집년이 되지 못흔 固執고집은 왜 그리 시운지 新郎[신랑] 三寸[삼촌]은 귀어히 족하 며누리를 삼아야겠다고 몇 번을 그리는지 모로는디……」

「그리 무엇이라고 對答[대답]하셨소?」

「글세 남이 붓그럽게 게집익더러 무러 본다나, 무엇이러나 그리지 안아도 큰 게집익을 일본까지 보닛너니 엇더니 하고 옥들을 흐는디 그리서 싱각히 본다고 헛지」

「그러면 거괴셔는 기다리겠소 그리」

「암 그게 받서 올 正月[정월]붓허 말이 잇던 것인디 동너집 시악씨 밋고 장가 못간다더니……」

「아이 그러면 速[속]히 左名[좌명] 間[간] 決定[결정]을 너여겠는디 엇더케 하나 저난 귀어히 하든 工夫[공부]를 맞치기 前[전]에는 죽여도 시집은 아니 가겠다 흐는디 그리고 더구나 그런 富者[부자] 집에 가서 치마 자락 느리고 심흔 只음은 꿈에도 업다고 흐다오. 그리서 제 동싱 시집 갈 썩도 제것으로 히노은 고운 옷은 모두 주엇습넌다. 비단 치마 속에 근심과 설음이 잇너니라고 흐다오. 그 말도 울킨 울어」

金夫人[김부인]은 自己[자기]도 남 부럽지 안케 이제것 富貴[부귀]하게 살 아왔스나 自己[자기] 남편이 절머슬 썩 放蕩[방탕]하여서 속이 傷[상]흔 일과 鐵原[철원] 郡守[군수]로 갓슬 썩도 妾[첩]이 두셋식되여 남 몰너 속이 썩든 生覺[생각]을 하고 경희가 이런 말을 할 썩마다 말은 아니하나 속으로 짜는 네 말이 올타 흐 적이 만했다.

「아이 아니 써운 년 그리기에 게집익을 가라치면 건방져서 못 쓴다는 말 이야…… 아직 철을 물너서 그러치…… 글세 그것도 그러치 안소 오작 혼 집에서 婚姻[혼인]을 썩구로 혼단 말이오. 金判事[김판사] 집도 우리 집 內容[내용]을 다 아는 터이니까 婚姻[혼인]도 흐자지 누가 썩구로 婚姻[혼인] 혼 집 시익씨를 데려 갈냐겠소 아니 이번에는 꼭 히야지……」

夫人[부인]의 말을 드르며 그럴 듯하게 生覺[생각]흔 李鐵原[이철원]은 이 썩꾸로 婚姻[혼인] 혼 生覺[생각]을 하니 只음이 急[급]작히 조려진다. 그리고 싱각할스록 이번 金判事[김판사]집 婚處[혼처]를 늦치면 다시는 그런 門閥[문벌]잇고 財產[재산]잇는 婚處[혼처]를 엇을 수가 업는 것 갓다. 그리서 두 말할 것 업시 이番[번] 婚姻[혼인]은 強制[강제]로라도 식힐 決

[결심]이 이러나다. 李鐵原[이철원]은 벌떡 이러선다.

「게집이가 工夫[공부]는 그러케 히서 무엇히? 그만치 알앗스면 고만이지 일본은 누가 또 보닛기는 하구? 이번에는 無關[무관]넉지 귀어히 그 婚處[혼처]호고 히야지, 넉일 또 한번 불너다가 아니 듯거든 또 무를 것 업시 곳 히버려야지……」

怒氣노기가 가득하다. 金夫人[김부인]은 「그러케 히시오」 라든지 「마시요」 라든지 무어시라고 對答[대답]홀 수가 업다. 다만 실업업시 自己[자기]가 風病풍병으로 누울 썩마다 경희를 시집 보닛기 전에 도라갈가 보아 아실 々호든 싱각을 하며

「짜는 하나 남은 경희를 마저 내 生前[생전]에 시집을 보닛 노아야 내가 죽어도 눈을 감겠넉디」 홀 썩이다.

李鐵原(이철원)은 이러시다가 다시 안지며 나직한 소리로 못는다.

「그런디 日本[일본] 보닛서 버리지는 아는 貌樣[모양]이오?」

「아니요 그 前[전]보다 더 부리전히져셔요. 아춤이면 第一[제일]몬져 이러납넉다. 그러서 마루 걸넉질이며 마당이며 멀거케 치여 訖치요. 그 썩인가요. 썩허면 썩방아 다 썩토록 체질히주기…… 그러케 시월이는 조와져 죽겸다지요……」

金夫人[김부인]은 果然[과연] 경희의 날마다 일호는 거슬 볼 썩마다 큰 安心[안심]을 漸漸[점점]차갸다. 그거슨 경희를 日本[일본] 보닌 後[후]로는 남들이 非難[비난]홀 썩마다 입으로는 말을 아니 호나 恒常[항상] 只음으로 念慮[염려]되는 거슨 경희가 萬一[만일]에 日本[일본]까지 工夫[공부]를 갸다고 난 체를 호다든지 工夫[공부]호 威勢[위세]로 산이갸치 안저서 먹자든지 호면 그 썩을 엇더케 남이 붓그러워 보잔 말인고 호고 未嘗不미상불 걱정이 된 거슨 어머니된 者[자]의 썩을 사랑호는 自然[자연]호 情[정]이라. 경희가 일본日本서 오든 그 잇혼날 붓허 압치마를 치고 부역으로 드러갈 썩에 오릭간만에 쉬우러 온 썩이라 말니기는 호였스나 속으로는 큰 숨을 쉬울 만치 安心[안심]을 엇은 거시다. 경희 家族[가족]은 누구나 다 아는 바와 곱히 경희의 마루 걸넉질, 다락 벽장 치움시는 前[전]붓허 有名[유명]호였다. 그러서 경희가 서울 學校[학교]에 잇슬 썩 一年[일년]에 세 번식[식] 休暇[휴가]에 오면 依例의례히 다락 벽장이 속々々지 沐浴[목욕]을 호게 되엿다. 또 金夫人[김부인]의 只음에도 경희가 치우지 안으면 아니 맛도록 되엿다. 그러서 다락이 지저분호다든지 벽장이 어수선호게 되면 밧서 경희의 올날이 몇칠 아니 남은 거슬 안다. 그러고 경희가 집에 온 그 잇혼날은 경희를 보러 오는 四寸[사촌] 형님들이며 할머니, 큰어머니는 한번式[식] 열



「다락, 벽장이 粉[분]을 발랐고나」 하시고 「찌긋하기도 하다」 하시며 稱讚[칭찬]을 하시셨다. 이거시 경희가 집에 가는 그 前[전]날 밤부터 깃버흔 것이고 경희가 집에 온 第一[제일]의 標蹟[표적]이었다. 金夫人[김부인]은 이번에 경희가 日本[일본]서 오면 年[년] 세번式[식] 沐浴[목욕]을 식혀주든 다락 벽장도 치여주지 아니 흘출만 알았다. 그러나 경희는 如前[여전]히 집에 到着[도착]하면서 父母[부모]님의게 인스 엇줍고는 첫 번으로 다락 벽장을 열었다. 그리고 그 잇흔날 終日[종일] 치웠다. 그런티 이번 경희의 掃除[소제] 方法[방법]은 前[전]과는 全[전]혀 달는다. 前[전]에 경희의 掃除[소제] 方法[방법]은 機械的[기계적]이었다. 東[동]쪽에 노릇든 祭器[제기]며 西[서]쪽 壁[벽]에 걸닌 표주박을 썰고 문질너서는 그 노릇든 자리에 그딴로 노흘 줄만 알았다. 그리서 잇던 김의줄만 엮고 싸헛든 문지만 터르면 이거시 掃除[소제]인 줄만 알았다. 그러나 이번 掃除法[소제법]은 달는다. 建造的[건조적]이고 應用的[응용적]이다. 家庭學[가정학]에서 비흔 秩序[질서], 衛生學[위생학]에서 비흔 整理[정리] 쏘 圖畫[도화] 時間[시간]에 비흔 色[색]과 色[색]의 調和[조화], 音樂[음악] 時間[시간]에 비흔 長短[장단]의 音律[음률]을 利用[이용]하야 只今[지금]까지의 位置[위치]를 全[전]혀 쓰더 고치게 된다. 磁器[자기]를 陶器[도기] 엮헤다도 노하 보고 七疊[칠첩] 반상을 漆器[칠기]에도 담아본다. 주발 밋헤는 주발보다 큰 사발을 밋쳐도 본다. 흰 銀[은]정반 위로 노로소름흔 종골방아치도 느려본다. 큰 항아리 다음에는 瓶[병]을 논는다. 그리고 前[전]에는 켁켁흔 다락 속에서 문지 너암시에 눈쌀도 썩흐렷슬 썩 外[외]라 終日[종일] 썩을 흘니고 掃除[소제]하논 거슨 家族[가족]의게 드를 稱讚[칭찬]의 報酬[보수]를 밋을나 흠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것도 달는다. 경희는 켁켁흔 속에서 제 몸이 이리저리 運動[운동]케 되는 거시 如干[여간] 滋味[자미]스럽게 生覺[생각]지 안았다. 일부러 비짜루를 늦코 쥐종을 집어 너암시도 맛하 보았다. 그리고 경희가 終日[종일] 일하논 거슨 아모 바라는 報酬[보수]도 업다. 다만 제가 저 할 일을 하논 것 막게 아모 것도 업다. 이러케 경희의 一動[일동] 一靜[일정]의 内幕[내막]에는 自覺[자각]이 生[생]기고 意識的[의식적]으로 되는 同時[동시]에 外形[외형]으로 活動[활동] 할 일은 썩로 만하진다. 그리서 경희는 할 일이 만타 萬一[만일] 경희의 親[친]흔 동모가 잇서서 경희의 할 일 中[중]에 하나라도 히준다 히면 비록 그 物件[물건]이 경희의 손에 잇다 하더라도 그거슨 경희의 것이 아니라 동모의 것일다. 이럼으로 경희가 조흔 거슬 갖고 십고 남보다 만히 갖고 십힐진딘 경희의 힘으로 能[능]히 할 만한 일은 향어나 털숫만흔 일이라도 남더러 히달나고 할

아닐다. 조금이라도 남의게 썩앗길 거시 아닐다. 아 多幸[다행]일다. 경희의 넙적 다리에는 살이 썩고 팔뚝은 굵다. 경희는 이 살이 다 싸져서 거를 수가 업슬 썩까지 팔뚝이 힘이 업서 느러질 썩까지 할 일이 無限[무한]일다. 경희의 가질 物件물건도 無數[무수]하다. 그럼으로 낮잠을 한번 자고나면 그 時間[시간] 자리가 完然[완연]히 텅이 난다. 終日[종일] 일을 하고 나면 경희는 반드시 조금식[식] 자리난다. 경희의 갖는 거슨 하나식[식] 느러간다. 경희는 이리케 아츨뵈허 저녁까지 엇기 爲[위]하야 자라갈 慾心[욕심]으로 제 힘껏 일을 한다.

李鐵原[이철원]도 自己[자기] 짚의 일하는 거슬 날마다 본다. 또 속으로 괴특하게도 역인다. 그러나 이리케 自己[자기] 夫人[부인]에게 무러본 거슨 李鐵原[이철원]도 亦是[역시] 金夫人[김부인]과 갖히 경희를 自己[자기] 아들의 勸告[권고]에 못 익이여 日本[일본]까지 보너엿스나 恒常항상 버릴가 보아 念慮[염려]되든 거슨 事實[사실]이였다. 그럼으로 오날 저녁에 夫婦[부부]가 안저서 婚處[혼처]에 對[대]흔 걱정이라든지 그이 버릴가 보아 念慮[염려]하든 거슬 安心[안심]하는 父母[부모]의 愛情[애정]은 그 두 얼굴에 썩은 우슴 속에 가득하다. 아모러흔 知友[지우]며 兄弟[형제]며 孝子[효자]인들 엇지 이 父母[부모]가 念慮[염려]하시는 念慮[염려] 깃버하시는 참 깃봄갓호리오. 李鐵原[이철원]은 婚姻[혼인]하자고 할곳이 업슬가 보아 밧썩 조엿든 ㅁ음이 조금 누구러졌다. 그러나 마루로 내려시며 마른 기침 한번을 하며 「내일은 世上[세상] 업셔도 하야야지」 하는 決心[결심]의 말은 누구의 命令[명령]을 가지고라도 能[능]히 썩티릴 수 업슬 것 가치 보힌다. 식벽 닭이 새 늘을 告[고]한다. 까마튼 밤이 白色[백색]으로 활작 열닌다. 同窓[동창]의 障紙[장지] 한 편이 次[차]々 밝아오며 모기張[장] 흔 썩호로 ㅁ뵈허 漸[점]々 연두식을 물디린다. 곤히 자든 경희의 눈은 썩웠다. 경희는 또 오날 終日[종일]의 제 일을 始作[시작]할 깃봄에 醉[취]하야 벌썩 이려나서 ㅁ을 나신다.

四[사].

썩는 正[정]이 午正[오정]이라. 안마루에서는 ㅁ심상이 버러졌다. 경희는 舍廊[사랑]에서 드러온다. 시월이며 거는방 형님은 간절히 ㅁ심 먹기를 勸[권]하나 드른 채도 아니하고 골방으로 드러시며 四方[사방] 房門[방문]을 ㅁ々 ㅁ는다. 경희는 ㅁ々 ㅁ겨 운다. 방바닥에 업디리기도 하다가 이려 안기도 하고 또 이려서 ㅁ 壁[벽]에다 머리를 부디친다. 기둥을 불썩 안고 ㅁ

돈다. 경희는 엇지 할 줄 몰나 썰 된다. 경희의 조고 마흔 가심은 불  
 갖히 타온다. 걸닌 手巾[수건] 자락으로 눈물을 씨스며 이싸금 흐는 말은  
 「아이구 엇지 흐나……」 할 썬이다. 그리고 이 집에 잇스면 밥이 업셔지  
 고 옷이 업셔질 터이니까 나를 어셔 다른 집으로 쫓칠냐나 보다. 흐는 怨罔  
 [원망]도 生[생]긴다. 마치 이 넓고 넓은 世上[세상] 우에 제 조고마흔 몸  
 을 들 곳이 업는 것 갖치도 싱각난다. 이런 쓸디업고 주제시러은 거시 왜  
 싱겨났나 흘 썬마다 끈썬든 눈물은 다시 비오듯 쏘다진다. 누가 와서 萬一  
 [만일] 말닌다 흐면 그 사름하고 쓰흠도 할 것 갖다. 그리고 그 사름의 머  
 리를 한번에 잡아 썬볼 것도 갖고 그 사름의 얼굴에서 피가 닻물과 갖히 흐  
 르도록 박々 할퀴고 쥐여트들 것도 갖다. 이러케 四方[사방] 窓[창]이 꼭々  
 닻친 조고마흔 어둠침々흐 골방 속에서 이리 부딪고 저리 부딪는 경희의 運  
 命[운명]은 엇더흐가!

경희의 압해는 只今[지금] 두 길 이 있다. 그 길은 희미흐지도 안코 썬렷흐  
 두 길일다. 한길은 쌀이 穀間곡간에 싸히고 돈이 만코 貴[귀]염도 밧고 사  
 랑도 밧고 밧기도 쉬울 黃土[황토]요 가기도 쉽고 찾기도 어렵지 안은 坦  
 [탄]々大路[대로]일다. 그러나 한 길에는 제 팔이 압흐도록 버리방아를 썬  
 여야 겨오 엇어 먹게 되고 終日[종일] 썬을 흘니고 남의 일을 히주어야 겨  
 오 몇푼돈이라도 엇어 보게 된다. 이르는 곳마다 賤待천대썬이오 사랑의 맛  
 은 썬에도 밧보지 못할 터이다. 발썬리에서 피가 흐르도록 험험 돌을 밧아  
 야 흐다. 그 길은 썬 썬러지는 絶壁[절벽]도 잇고 날카로운 山頂[산정]도  
 잇다. 물도 건너야 흐고 언덕도 넘어야 흐고 數[수]업셔 썬부러진 길이요  
 갈수록 險[험]흐고 찾기도 어려운 길일다. 경희의 압해 잇는 이 두 길 中[중]  
 에 하나를 오날 擇[택]히야만 흐고 只今[지금] 꼭 定[정]히야 흐다. 오날  
 擇[택]한 以上[이상]에는 닻일 밧글 수 업다. 只今[지금] 定[정]흐 ㅁ음이  
 잇싸가 急變급변흐 理[리]도 萬無[만무]흐다. 아々 경희의 밧은 이 두 길  
 中[중]에 어느 길에 닻노아야 흐가. 이거슨 教師[교사]가 가라칠 것도 아니  
 고 親舊[친구]가 잇셔々 忠告[충고]흐되도 썬디업다. 경희 제 몸이 저 갈  
 길을 擇[택]히야만 그거시 오릭 維支[유지]할 것이고 제 精神[정신]으로 흐  
 거시러야 變更[변경]이 업슬 터이다. 경희는 썬 한 번 머리를 부딪고 「아이  
 구 엇지흐면 조흔가!」 흐다.

경희도 女子[여자]다. 더구나 朝鮮社會[조선사회]에서 사라온 女子[여자]  
 다. 朝鮮[조선] 家庭[가정]의 因襲인습에 파뭇친 女子[여자]다. 女子[여자]  
 라는 溫良柔順[온량유순]히야만 썬다는 社會[사회]의 面目[면목]이고 女子  
 [여자]의 生命[생명]은 三從之道[삼종지도]라는 家庭[가정]의 教育[교육]일

. 내려실냐면 壓迫[압박]호라는 周圍[주의]요 움직이면 四方[사방]에서  
 드러오는 辱[욕]이다. 多情[다정]하게 손 붓잡고 忠告[충고]주는 동모의 말  
 은 열 사름 한 입갓치 「便[편]하게 前[전]과 갓히 살다가 죽읍세다」 훔일  
 다. 경희의 눈으로는 비단옷도 보고 경희의 입으로는 藥食[약식] 煎骨전골  
 도 먹었다. 아 경희는 어느 길을 擇[택]호여야 當然[당연]호가? 엇더케  
 살아야만 조혼가? 마치 갈가에 탄평으로 몸을 느려 기어가든 비암의 콩지를  
 집혔이 씻으로 조금 근디리면 느려졌든 몸이 뺏악 옥으러지며 눈방울이 디  
 룩々々호고 생족흔 허를 毒氣[독기]잇게 자조 너미는 貌樣[모양]갓치 이러  
 헝 싱각을 할 썸마다 경희의 몸에 미달닌 두 팔이며 느러진 두 다리가 뺏악  
 가슴 속으로 비속으로 옥으라 드러온다. 마치 어느 作亂[작란]감 商店[상  
 점]에 노은 디가리와 몸땡이 썸인 作亂[작란]감갓치 된다. 그리고 十三貫  
 [십삼관]의 體重[체중]이 급[급]작이 白紙[백지] 한 장 만치 되여 바람에  
 날니는 것 갓다. 쏘 머리 속은 저도 알만치 々々호고 셔 — 늘히진다. 눈도  
 썸작으릴 줄 몰누고 壁[벽]에 구멍이라도 썸을 것 갓다. 등에는 썸이 흠썸  
 피이고 四指[사지]는 죽은 사름과 갓히 차디 차다.

「아이구 엇지 호면 조혼가!」

경희는 병어리가 된 것 갓다 아모말도 할 줄 몰누고 썸 한마디 할 줄 아는  
 말은 이 말 썸일다.

경희는 제 몸을 만져 본다. 왼 편 손목을 바른 便[편] 손으로, 바른 便  
 [편] 손목을 왼 便[편] 손으로 쥐어본다. 머리를 흔들어도 본다. 크지도 안  
 코 조고마흔 이 몸…… 이 몸을 엇더케 셔야 흥가. 이 몸을 어디로 向[향]  
 호여야 조혼가…… 경희는 다시 제 몸을 위에서부터 아리싣지 흘터본다. 이  
 몸에 비단 치마를 느리고 이 머리에 翡翠玉簪[비취옥잠]을 싣져 불가 大家  
 宅[대가택] 맛매누리 얼마나 威嚴[위엄]스러울가. 식이기 식싣씨 노름이 얼  
 마나 滋味[자미] 잇슬가? 媳父母시부모의 사랑인들 얼마나 만흥가. 只今[지  
 금] 이러케 賤童[천동]이든 몸이 父母[부모]님의게 얼마나 貴[귀]음을 밧을  
 가. 親戚친척인들 오작 부러워호고 우리々 불가. 잘못호였다. 아々 잘못 호  
 였다. 왜 아버지가 「정[定]호자」 호실 썸에 「네」 호지를 못호고 「안되요,」  
 헛나, 아々 왜 그뤼나, 엇더케 할냐고 그러케 對答[대답]을 호였나! 그런  
 富貴[부귀]를 왜 싣타고 헛나, 그런 자리를 놓치면 나중예 엇지 호잔 말인  
 가. 아버지 말슴과 兪호 苦生[고생]을 몰나 그런가 보다. 철이 아니 나셔  
 그런가 보다. 「나중예 後悔[후회]호리라」 호시더니 밧셔 後悔莫及후회막급  
 인가 보다. 아々 엇지 호나 썸가 더디기 前[전]예 只今[지금] 舍廳사랑에  
 나가셔 아버지 압헤 自服[자복]할가 보다. 「제가 잘못 生覺[생각]호였습니

」고 그러케 할가? 아니다. 그러케 할 터이다. 그거시 適當[적당]흔 길일다. 그리고 구치 안은 工夫[공부]도 고만 둘 터이다. 가지 말나시는 日本[일본]도 쏘 다시 아니 가갠다. 이 길인가 보다. 이 길이 밝을 길인가 보다. 아 그러케 定[정]하자 그러나……

「아이구, 엇지하면 도흔가……」

경희의 눈은 말쑥へ 한다. 全身[전신]이 千斤萬斤[천근만근]이나 되도록 무거워졌다. 머리 위에는 큰 銅鐵[동철] 투구를 들썩운 것 갓치 무겁다. 옥으러젓든 두 팔 두 다리는 어느덧 나와서 척 느러졌다. 도로 全身[전신]이 옥으라진다. 엇지 할냐고 그런 大膽[대담]스러운 對答[대답]을 하였나 하고 아버지가 「게집이라는 거슨 시집가셔 아들 딸 낳코 媿父母[시부모] 섬기고 남편을 恭敬[공경]하면 그만이니라」 하실 썩에 「그거슨 냇날 말이야요. 只今[지금]은 게집이도 사름이라 히요. 사름인 以上[이상]에는 못할 거시 업다고 히요. 사늑와 갓히 돈도 버를 수 잇고 사늑와 갓히 벼슬도 할 수 잇셔요. 사늑 하는 거슨 무어시든지 하는 世上[세상]이야요」 하든 生覺[생각]을 하며 아버지가 담비디를 드시고 「머 엇제고 엇제. 네까짓 게집이가 하긴 무얼히 日本[일본]가셔 하라는 工夫[공부]난 아니 하고 貴[귀]흔 돈 업시고 그까짓 영쑹흔 소리만 비화 가지고 왔셔?」 하시든 무서운 눈을 싱각하며 몸을 흠칠한다.

果然[과연] 그러타. 나갓흔 거시 무얼 하나. 남들이 하는 말을 흥늑는 거시 아닌가. 아々 果然[과연] 사름 노릇 하기가 쉬울 거시 아닐다. 男子[남자]와 갓히 모 一 든 거슬 하는 女子[여자]는 平凡[평범]흔 女子[여자]가 아닐 터이다. 四千年來[사천년래]의 習慣[습관]을 끼티리고 나시는 女子[여자]는 웬만흔 學問[학문], 如干[여간]흔 天才[천재]가 아니고셔는 될 수 업다. 나과륜 時代[시대]에 巴里[파리]의 全[전] 人心[인심]을 움직이게 하든 스라아루 夫人[부인]과 갓흔 微妙미묘흔 理解力[이해력], 饒舌요설흔 雄辯[웅변] 그러흔 機才[기재]흔 社會的[사회적] 人物[인물]이 아니고셔는 될 수 업다. 사라셔 오루렌을 救[구]하고 死[사]힘에 佛蘭西[불란서]를 救[구]하넑 〰 답크 갓흔 百折不屈백절불구의 勇進용진, 犧牲희생이 아니고셔는 될 수 업다. 達筆[달필]의 論文家[논문가], 明快[명쾌]흔 經濟書[경제서]의 著書[저서]로 일힘이 날넑 英國女權論[영국여권론]의 勇將[용장] 헛드 夫人[부인]과 갓흔 語論[어론]에 精勁정경하고 意志[의지]가 強固[강고]흔 者[자]가 아니고셔는 될 수 업다. 아々 이러케 쉽지 못한다. 이만흔 實力[실력], 이러흔 犧牲[희생]이 드러야만 되는 것이다.

경희가 이제갓 비화한다는 學問[학문]을 톡々 터러모하도 그거슨 잠작 놀날

아모 것도 없다. 남이 제 압해서 춤을 추고 노리를 하나 춤으로 조와  
 홀 줄을 몰누고 眞情[진정]으로 우셔줄 을 몰루는 自痴[자치] 갖흔 感覺  
 [감각]을 가졌다. 한 마디 對答[대답]을 할냐면 얼굴이 벌게지고 語序[어  
 서]를 차질 줄 몰누는 鈍舌[둔설]을 가졌다. 조금 苦[고]로오면 실여, 조금  
 맛기만 하여도 慟哭[통곡]을 하는 못된 臆病[억병]이 있다. 이 사름이 이리는  
 디로 저 사름이 저리는 디로 東風[동풍]부는 디로 西風[서풍]부는 디로 썰  
 니고 싸라가도 곳칠 수 업시 衰弱[쇠약]한 意志[의지]가 드러 안졌다. 이거시  
 사름인가, 이거슬 가진 爲人[위인]이 사름 노릇을 하잔 말인가. 이까짓 남  
 들 다 아는기, 나썸의 學問[학문]으로, 남들도 귀울줄 아는 三時[삼시] 밥  
 먹을 썬 올흔 손에 속가락 잡을 줄 아는 것썸으로는 밧서 틀녓다. 어렵도  
 업는 虛榮心[허영심]일다. 萬一[만일] 古今[고금] 事業家[사업가]의 各[각]  
 婦[부]인들이 알면 코우숨을 우술 터이다. 정말 영썸흔 소리다. 「아이구,  
 엇지하면 조흔가……」

여기까지 제몸을 反省[반성]흔 경희의 生覺[생각]에는 저를 맞며누리로 데  
 려갈냐는 金判事[김판사] 집도 싹하다. 또 저갓흔 천치가 그런 富貴[부귀]  
 흔 宅[택]에서 데려갈냐면 고기를 숙이고 네々 小女[소녀]를 맞치며 열는  
 가야할 거시 當然[당연]흔 일인디 싹타고 하는 거슨 제가 生覺[생각]하여도  
 팻썸흔 일々다. 그리고 아바지며 어머니며 其外[기외] 여러 親戚친척 할마  
 니, 아자마니가 저를 볼 썬마다 시집 못 보닐가 보아 걱정들을 하시는 것이  
 當然[당연]흔 일인 것도 갓다.

경희는 이제까지 비나 쪽진 夫人[부인]들을 보면 밋오 불상이 生覺[생각]  
 하였다. 「저거시 무어슬 알고 저러케 어른이 되었나 남편에게 對[대]흔 사  
 랑도 몰누고 機械[기계]갓히 本能的[본능적]으로만 저러케 금수와 갓히 살  
 아가는구나 子息[자식]을 貴愛[귀애]하는 거슨 밥이나 만히 먹이고 고기나  
 만히 먹일 줄만 알앗지 조흔 學問[학문]을 가라칠 줄은 몰누는고나 저것도  
 사름인가」 하는 驕慢[교만]흔 눈으로 보아왔다. 그러나 원일인지 오날은 그  
 夫人[부인]들이 모다 壯[장]하게 보인다. 설거질하는 시월이 머리에도 비  
 녀가 쪽 저진 거시 저보다 훨씬 나흔 것도 갓치 보인다. 담 사이로 農民[농  
 민]의 子息[자식]들의 우는 소리가 들니는 것도 저보다 훨씬 나흔 卍世  
 [세상] 갓다. 아모리 生覺[생각]하여도 저는 저갓흔 어른이 될 수 업는 것  
 갓고 제 몸으로는 저와 갓흔 아회를 나올 수가 업는 것 갓다. 「저와 갓히  
 이러케 가기 어려운 시집을 엇지면 그러케들 만히 갓고 저와 갓히 이러케  
 어렵게 子息[자식]의 教育[교육]을 이리 저리 궁구하는 거슬 저러케 쉬웁게  
 잘들 살아가누」 生覺[생각]을 혼즉 저는 아모 것도 아니다. 그 夫人[부인]

自己[자기]보다 몇 十배[십배] 낫다.

「엇더케 저러게들 쉬웁게 비나들을 쪽지게 되었나? 엇지면 저러케 子息[자식]들을 만히 나아 가지고 구순히들 잘 사누 참 장하다.」

경희는 생각할수록 그늬들이 壯[장]하다. 그리고 저는 이러케도 시집가가 어려운 거시 도모지 異常[이상]스럽다. 「그 婦人[부인]늬들이 壯[장]한가? 내가 壯[장]한가? 이 婦人[부인]늬 들이 사람일가? 내가 사람일가?」 이 矛盾모순이 경희의 깊은 잠을 썩우는 큰 煩悶[번민]이다. 「그러면 엇지 하여야 壯[장]함 사람이 되나」 하는 거시 경희의 머리가 무거워지는 苦痛[고통]이다.

「아이구 엇지 하나 내가 그러케 될 줄 알아슬가……」

한 마디가 느렸다. 同時[동시]에 경희의 머리숱이 옷썩 위로 올라간다. 그리고 경희의 썩 ्ह 얼굴, 납적्ह 입 길죽्ह 四指[사지]의 形狀[형상]이 모다 슬어지고 조고마्ह 밀집 瘻해 ㅅㅅ하는 불꽃갓흔 무어시 바람에 썩 잇는 것 갖다. 房[방]만은 흑군ㅅㅅ하다. 不知中[부지중]에 四方[사방] 窓[창]을 열어제쳤다.

쓰거운 強[강]्ह 光線이[광선] 瞥眼間[별안간]에 왓각 ㄷ드는 거슨 편쌈군의 兩便[양편]이 六[육]모방뎡이를 들고 「자……」 ्ह며 ㄷ드는 것 갖히 ㅅㅅ 놀날만치 強[강]्ह게 썩여드러온다. 五色[오색]이 混雜[혼잡]्ह 百日紅[백일홍], 活年花[활련화] 우으로는 連絡不絶[연락부절]히 호랑나비 노란 나비가 오고가고 ्ह다. 비나무 우에 ㅅㅅ 버금자리에는 ㅅㅅ만 식기 ㅅㅅ가리가 들락나을낙하며 어미 ㅅㅅ마귀가 ㅅㅅ을 것 가지고 오는 거슬 기다리고 ्ह다. 답스리 그늘 ㅅㅅ해는 ㅅㅅ실기가 ㅅㅅ러져 ㅅㅅ자고 ्ह다. 그 비는 불눅하다. 울타리 ㅅㅅ호로 ㅅㅅ뎡이 ㅅㅅ으러 다니는 어미 ㅅㅅ의 뒤로는 ㅅㅅ여섯 마리의 병아리가 ㅅㅅ ㅅㅅ라간다. 경희는 얼싸진 것 갖히 ㅅㅅ간 — 니 안져서 보다가 몸을 일부러 움지기였다.

저것! 저것은 기다. 저것은 ㅅㅅ이고 저거슨 ㅅㅅ이다. 저것은 비나무다. 그리고 저기 ㅅㅅ달닌 거슨 ㅅㅅ다. 저 하늘에 ㅅㅅ거슨 ㅅㅅ치다. 저것은 향아리고 저것은 ㅅㅅ구다.

이러케 경희는 눈에 보이는 ㅅㅅ로 그 名稱[명칭]을 불너본다. 엽해 노힌 머리창 도 ㅅㅅ져본다. 그 우에 ㅅㅅ여셔 언진 ㅅㅅ주 이불도 ㅅㅅ다듬어 본다. 「그러면 내 名稱[명칭]은 무어신가? 사람이지! ㅅㅅ 사람이다.」

경희는 壁[벽]에 걸닌 體鏡[체경]에 제 몸을 비춰여본다. 입도 버려보고 눈도 ㅅㅅ직여본다. 팔도 드러보고 다리도 ㅅㅅ여노아 본다. 分明[분명]히 ㅅㅅ貌樣[모양]이다. 그리고 두러누은 ㅅㅅ실기와 ㅅㅅ뎡이 ㅅㅅ으러 다니는 ㅅㅅ과 ㅅㅅ

까 귀와 저를 比較[비교]히본다. 저것들은 禽獸[금수] 卽[즉] 下等動物[하등동물]이라고 動物學[동물학]에서 비했다. 그러나 저와 갖치 옷을 입고 말을 하고 거리 다니고 손으로 일하는 거슨 萬物[만물]의 靈長[영장]인 사람이라고 비했다. 그러면 저도 이런 貴[귀]한 사람이로다.

아 對答[대답] 잘 했다. 아버지가 「그리로 시집가면 도흔 옷에 生前[생전] 비불니 먹다가 죽지 안켓니?」 하실 썩에 그 무서운 아버지 압헤서 平生[평생] 처음으로 벌々 썰며 對答[대답]하였다. 「아버지 顏子[인자]의 말씀에도 一簞食[일단사]와 一瓢飲[일표음]에 樂亦在[낙역재] 其中[기중] 이라는 말씀이 업습니가? 먹고만 살다 죽으면 그것슨 사람이 아니라 禽獸[금수]이지요. 버리밥이라도 제 努力[노력]으로 제 밥을 제가 먹는 거시 사람인줄 압니다. 祖上[조상]이 버리는 밥 그거슬 그덕로 밧은 남편의 그 밥을 쏘 그덕로 엇어먹고 잇는 거슨 우리집 기나 一般[일반]이지요」 하였다. 그러타. 먹고 죽으면 그거슨 下等動物[하등동물]이다. 더구나 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안코 祖上[조상]의 財物[재물]을 밧아가지고 제가 밧들기는 들겨 쳐노코 밧은 것도 쓸 줄 몰나 술이나 妓生[기생]에게 쓸티업시 浪費[낭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禽獸[금수]와 갖히 비 쭈디리다가 죽는 富者[부자]들의 家庭[가정]에는 別[별]々 悲慘[비참]한 일이 만타. 殆[태]히 禽獸[금수]와 區別[구별]을 할 수도 업는 일이 만타. 그런 者[자]는 사람의 가족을 暫間잠간 비러다가 쓴 것이지 조금도 사람이 아닐다. 저 답살이 그늘 밧헤 두러놀나 하야도 기가 비웃고 그 자리가 앓갑다고 할 터이다.

그러타. 苦[고]로움이 지나면 樂[낙]이 잇고 우름이 다 하면 우습이 오고 하는 거시 禽獸[금수]와 달는 사람이다. 禽獸[금수]가 能[능]치 못하는 生覺[생각]을 하고 創造[창조]를 하는 거시 사람이다. 사람이 버른 쌀 사람이 먹고 남은 밥 썩게기를 바라고 잇는 禽獸[금수] 주면 돛타는 禽獸[금수]와 달는 사람은 제 힘으로 찾고 제 實力[실력]으로 엇는다. 이거슨 조금도 矛盾[모순]이 업는 사람과 禽獸[금수]와의 差別[차별]이다. 조금도 疑心[의심]업는 眞理[진리]이다.

경희도 사람이다. 그 다음에는 女子[여자]다. 그러면 女子[여자]라는 것보다 먼저 사람이다. 쏘 朝鮮[조선] 社會[사회]의 女子[여자]보다 먼저 宇宙[우주] 안 全人類[전인류]의 女性[여성]이다. 李鐵原[이철원], 金夫人[김부인]의 쌀보다 먼저 하나님의 쌀이다. 如何[여하]튼 두 말할 것 업시 사람의 形狀[형상]이다. 그 形狀[형상]은 暫間잠간 들씨운 가족 썩 아니라 內腸[내장]의 構造[구조]도 確實[확실]히 禽獸[금수]가 아니라 사람이다.

오나 사람이다. 사람으로 보이지 안는 險[험]한 길을 찾지 안으면 누구더



차지라 하리! 山頂[산정]에 올라서 너려다 보는 것도 사름이 할 거시다. 오냐 이 팔은 무엇호자는 팔이고 이 다리는 어디 씨자는 다리냐?

경희는 두 팔을 번쩍 들었다. 두 다리로 썩충 썩었다.

싼々흔 히빛이 스프々 누구러진다. 남치마 빗갓흔 하날빛히 油然[유연]히 써오른 검은 구름에 가리운다. 南風[남풍]이 곱게 살々 부러 드러온다. 그 바람에는 花粉[화분]과 香氣[향기]가 싸혀 드러온다. 눈 압헤 번기가 번쩍々々 호고 억게 우으로 우뢰소리가 우루々々 한다. 조금 잇스면 여름 소년기가 쏘다질 터이다.

경희의 精神[정신]은 恍惚황홀하다. 경희의 키는 瞥眼間[별안간] 飴[이] 느러지드시 붓씩 느러진 것 갖다. 그리고 目[목]은 眵[진]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갖다. 그덕로 푹 업디리여 合掌합장으로 祈禱[기도]를 올린다.

하느님! 하느님의 쌀이 여기 잇습니다. 아버지! 내 生命[생명]은 만흔 祝福[축복]을 가젓습니다.

보십소! 내 눈과 내 귀는 이러케 活動[활동]호지 안습니가?

하느님! 내게 無限 [무한]흔 光榮[광영]과 힘을 너려 주십소.

내게 잇는 힘을 다호야 일호오리다.

賞[상]을 주시든지 罰[벌]을 너리시든지 冥음덕로 부리시옵소서.

(『女子界[여자계』, 1918. 3)